

노숙자 후원 급감... 시설 운영난 심각

이리크 전등 등 경제 악재로 노숙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후원과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가 최근 불교계 노숙자 시설 6곳을 폐쇄하는 등 노숙자 복지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3년 3월 교계 노숙자 수용 시설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보현의 집 4곳을 비롯, 경블련의 아침을여는집, 우리는 선우의 화엄동산, 청담·분동복지관 등 총 8곳으로, 수용인원만 대략 440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시설 대부분은 후원금 감소, 운영비의 정부지원 의존률 증가, 자원봉사자 급감 등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블련 아침을여는집의 경우, 정기 후원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년 시설 운영비를 전적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 4000만원 중 50%를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 한 명당 약 8만원

정도로 운영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더해 노숙자 시설 봉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자칫 자원봉사자의 발길을 거의 끊긴 상태다.

종로 보현의집, 용산 보현의집, 영등포 보현의집 등도 마찬가지다. 종로 보현의집은 정부지원금과 법인전입금에

년 예산도 9천만원에 불과하여 노숙자 1인당 생활비는 월 12만원이 갇힌 수준이다. 영등포 보현의집은 1년에 3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외환위기 때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자원봉사자 역시 올해 들어 전무하다.

한달 운영비 1인당 8만~15만원 수준 화엄동산·분동복지관 자활프로 중단 자원봉사자들 발길 끊겨 어려움 더해

80% 이상 의존하고 있다. 1년 예산 7600만원 외에 별도의 후원자가 나서지 않으면서 종로 보현의집의 월 운영비는 노숙자 1인당 15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67명을 수용하는 용산 보현의 집의 1

화엄동산, 분동복지관 등 여성 노숙자 시설도 운영난으로 미용교실 등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다. 현재 화엄동산에 들어오는 한달 후원금은 30만원에 불과하다. 식비와 운영비에 정부보조금을 쓰고 나면 여성 노숙자를 위한 자활

◆불교 노숙시설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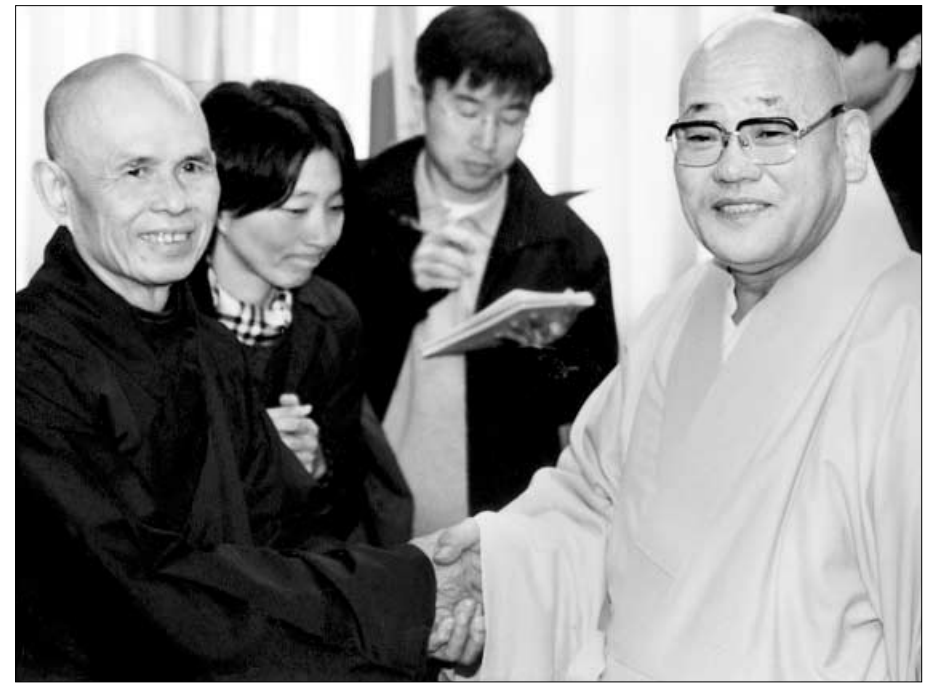
보현의 집(서울 영등포)	2678-4892
보현의 집(서울 용산)	711-7735
보현의 집(서울 종로)	737-4894
보현의 집(부산 동래)	051-506-0146
아침을여는 집	924-1010
화엄동산	2642-1363
청담복지관	806-1376
분동복지관	817-8052

프로그램의 운영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노숙자 시설 운영난과 관련, 전문가들은 △중단 차원의 노숙자 시설 지원 △노숙자에 대한 불자의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 △신행 차원의 보시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 보현의집 이수경 생활지도사는 "노숙자를 돕기 위한 불교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오른쪽)과 틱낫한 스님이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전통 세계인 위한 것” 틱낫한 스님 “선불교 가르침 인류 대안사상” 법장 스님

틱낫한 스님 조계종 총무원 방문

틱낫한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은 한국 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불교에 존경을 표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은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인류의 대안사상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방한 중인 틱낫한 스님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법장 스님과 만나 한국불교의 전통과 틱낫한 스님이 운영하는 승가공동체(플립 빌리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법장 스님은 먼저 틱낫한 스님에게 “수행자이자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이신 스님이 한국의 평화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 대한

두 스님은 청와대를 방문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배석했던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의 “이리크 전등은 물론 북핵 문제로 한반도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두 분께서 청와대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환경재단은 법장 스님이 제의를 수락함에 따라 청와대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틱낫한 스님은 “우리 승가는 임제종의 법맥을 잇고 있고, 저는 임제종 41대이며, 제자들은 42대로 선불교 전통과 맞닿아 있다”며 “지난 25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수행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퍼왔다. 현재 우리 승가에는 25

‘맑은 물을 생각’ 하며 주제詩 음성공양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건넸고, 틱낫한 스님은 “조계종의 전통을 뿌리내린 많은 조사스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또 “한국불교의 유구한 전통은 보물과 같이 간직되고 있다. 그런 소중한 전통을 지키고 선양하기 위해 수행해 온 스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불교 전통을 잘 지켜온 것은 한국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와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불교전통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법장 스님은 “한국불교는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면면히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인류의 대안사상이 될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전통에 대해 설명했고, 틱낫한 스님은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국의 비구와 비구니가 있다”고 플립

빌리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틱낫한 스님과 함께 방문한 제자 17명은 대화 장소에서 즉석으로 ‘반야심경’과 틱낫한 스님이 지은 ‘맑은 물을 생각하며’라는 주제의 시를 각각 영어와 베트남어로 음성공양했다.

법장 스님은 음성공양을 받고 난 뒤 “오늘의 기도는 남북통일과 조계종단 발전 그리고 한국인의 평화와 안생을 기원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틱낫한 스님은 ‘정도는 지금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내용의 친필 액자와, 영어와 한국어로 출간된 자신의 저서 10여 권을 법장 스님에게 선물로 전달했으며, 법장 스님도 자신의 저서인 <그대를 모으려 다니는 나그네>와 종단 안내책자, 인사를 틱낫한 스님에게 선물했다. 한명우 기자

법장 총무원장 스님 체제가 들어서면서 조계종 중앙종회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도 재편이 종회 고유의 기능

강화로 작용할지, 아니면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해져 모여’에 불과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25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가 향후 중앙종회 방향의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서 법장 스님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무소속연대’와 종회 내의 또 다른 계파인 ‘청림회’는 18일 오후 양재동 교목문화관에서 회합을 갖고 두 계파를 합치기로 결정했다.

또 ‘지지사단’으로 불리는 ‘원융회’와 실천승가회가 축을 이루고 있는 ‘일여회’도 최근 정책공조에 합의함으로써 단일 계파 성격으로 연대하고 정대 총무원장 당시 ‘여당’ 역할을 했던 ‘보림회’도 결속을 다지고 나섰다. 결국 지난해 말 13대 중앙종회가 개원하면서 보림, 원융, 청림, 일여, 무소속연대 5대 계파는, 보림, 원융·일여, 통합 계파 등 3대 흐름으로 정리됐다.

무소속연대와 청림회 두 계파의 통합을 주도했던 정대 총무원장은 “젊은 개혁세력이 종단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함께 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입법기능에 충실하면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합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구도 재편

하지만 다른 계파들은 두 계파의 통합을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세 불리기를 통해 종회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융회와 일여회의 일부 종회의원들은 “정대 스님을 옹립했던 (청림회)사람들이

로 이해관계에 따라 각 계파들이 움직이면서 대립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여지도 많다. 우선 정치색이 얽은 법장 스님이 종단운영 초점을 ‘계파 정치’보다는 ‘비정치 효율성’에 둘 것으로 보여 과거와 같

은 ‘나뉘먹기식’의 구태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종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각 계파가 종단발전을 명분으로 ‘정책적 공조’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공조 이유(이해관계)를 떠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종도들은 법장 스님을 새 시대의 ‘흐름’으로 선택하면서, 종회도 함께 변해갈 바라고 있다. 이제 다협과 양보를 통한 종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지, 아니면 구태를 반복하며 이해관계에 함몰될지 선택은 전적으로 종회에 달려있다.

한 종회의원은 “종회 내에 계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승가에 맞지 않지만, 소신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면 정책대결을 통해 열린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ghan@buddhapia.com

‘무소속연대’ ‘청림회’ 두 계파 통합 결정

‘원융회’ ‘일여회’도 정책공조기로 합의

‘나뉘먹기’ 구태 개선 긍정적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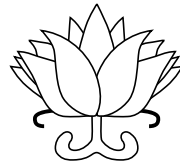
종회 내에서의 ‘자기 평가’ 없이 주도세력이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몇몇 인사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통합된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림회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통합계파는 물론 원융회와 일여회 종회의원 중 상당수가 법장 스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세’가 불리하다고 판단, 사안에 따른 정책 공조를 내세우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과거 종회와 마찬가지로

새롭고 건강한 음식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사)대한불교 대승종 구족계 수계산림 대법회



공인 구족계 증명 대법사 중정 도암성도 큰스님

전계대화상 총무원장 법도일오 대종사
갈마아사리 종회의장 범정만춘 대종사
교수아사리 원로원장 범효서봉 대종사

철 중 사 범성정산 종사
범철혜심 종사
범운기현 종사
효과승정 종사
효담영인 종사
범상 종사
천광 종사

인례스님 효산혜심 종덕

귀의 삼보하옵니다.

대승종 종도 여러분의 건강과 사찰의 대작불사 원만성취를 기원합니다.

대승종 총무원에서는 종도님들의 권리를 위하여 종단 공인 구족계(비구, 비구니계) 수계산림을 병행하오니 불사에 공사다망 하시리라 사료되오나 법연에 수회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의 종도는 종법의 승니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행이 완료되면 종단 공인계단에서 구족계를 수계하여야 종도의 권리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법의 계단법 제 6조 3항, 제 14조 각항, 제 17조 각항에 의하여 구족계 수계산림을 열어 비구, 비구니계를 해당 종도님들께 봉수하고자 합니다.

구족계 수계 대상

- 만 20세 이상자(고졸이상)
- 종단 공인득도계(사미, 사미니계)를 수계하고 2년이 경과된 자
- 타 종단에서 전적된지 2년 미만인자
- 기타 종단에서 행해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법회 안내

- 일 시 : 불기2547년 4월 11일 (금) 오후 1시
- 장 소 : 총무원 만장사 대법당
- 준비물 : 가사, 장삼
- 접수일 : 3월 31일 까지(당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86-19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교무부
- Tel. 031)448-8811 / Fax. 031)448-8006



(사)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도일오 합장